네비게이션의 원조는 한전의 전주번호

김 방 규 I 전선도전기(주) 사장

60년대 서울에서 집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. 6₩25 전쟁으로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 과폭격으로 파괴된 집들을 대신하여 산비탈에 판잣집이 들어섰다.

이렇게 해서 생긴 달동네에는 산 몇 번지 , 몇 호 하며 같은 호에도 많으면 수 십 집이 살고 있었다. 이때 이곳은 서울로 유학 온 시골 학생도 있었는데 본가에서 학비를 우편으로 하고, 긴급 부고 도전보로 할 수밖에 없으니우편 배달원이 집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.

최소 단위가 몇 통 몇 반으로 작은 판잣집에도 몇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어 우편물 주소는 대개 " 홍길동 방의 누구누구 식으로 세대주만은 반드시 적어야 했다. 그러나 반장도 확인 못하는 집이 있다 보니 기류계(주민등록)에 의존하는 동사무소는 더욱 모를 일이라 도저히 집을 못 찾을 경우 현명한 우편 배달원은 관할 한전영업소를 찾아가 물어보곤 했다.

이때 전기회사(한전)의 네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하게 찾아 주었는데 그것이 한전 전주번호이다. 수용가 카드를 보면 인입전주 번호가 적혀있는데, 예를 들면 P동 지선 몇 호 좌6, 우3 식으로 기재되어 그 전주에서 인입된 집을 찾고, 또 행정번지에 별개로 전기 호수를 매기는데 같은 번지 내에 좌측 첫 집이 1호이고, 2, 3..으로 계속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오른쪽 끝이 마지막 호수가 되는 형태로 한전 마크가 찍힌 알루미늄 판에 호수를 찍은 표찰을 각 세대에붙였다.

이런 형태는 수도 사업소에서도 했지만 수도 없는 집이 많았고 한 동에 공동 도로 하나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성엔 한전 표찰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.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사정이 안 좋은 시절 동호인끼리 멀리 시골로 등산이라도 갔다가 늦은 저녁에 길을 잃으면 칠흑같은 어두운 밤 어느 쪽으로 가야 민가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. 이럴 때에도 일단 신작로까지 나가면 전주를 볼 수 있는데, 물론 목주이고 위에 완목(완금이 없어 전부 완목이다)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완목의 반대 방향 이변전소 방향이다.

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민가를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반가운가. 그리고 대략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. 전주간 거리가 도시는 50m, 시골은 60m로 표준화되어 있으니 배전선로의 번호를 보면 간선 1호가 첫 인출주 이므로 거리 추산도 가능하다. 이 어찌" 원조 네비게이션 "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?